

# “별이 된 아이들 잊지 않길...” 눈물의 세월호 기억식

## 목포신항 세월호 추모행사

유족, 딸이름 부르며 “미안”  
이태원 유족도 “재발 방지”  
진도·광주 등서 추모 행렬

“빛이 되고, 별이 되고, 바람이 된 다혜야. 아이들아. 미안하다.”

녹슬고 부서진 세월호 선체가 놓인 부두에 한 어머니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2014년 4월16일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딸.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다혜엄마 김인숙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미안해, 미안하다’ 조금 더 크게 외치면 하늘에 닿을까, 10년 동안 수십 번 외쳤을 ‘미안하다’는 말을 어머니는 또 한 번 되뇌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목포신항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가 주최한 10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 및 전남도교육감, 목포시장, 국회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진도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족들은 기억식에 참여하기 위해 곧바로 목포신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망망대해에 국화꽃을 던지며 한차례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며 추모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물바다를 이룬 유족들의 표정은 세월호 앞에서 더욱 침울해졌다. 아이들이 간혀 있던 세월호는 어느새 본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슬었지만, 애달프고 비통한 유족들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과 다르지 않았다. 구슬픈 피아노 반주 소리 사이로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여전히 안전사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억’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혜엄마 김인숙씨는 기억사를 통해 “시간이 흘러 딸은 27살이 돼도 아픔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며 “아마도 10년,

그 후 10년이 흘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여전히 이 나라는 안전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모두 그날의 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의 의미로 자리에 함께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정부를 향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생명 안전 공약을 지켜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해린씨의 아버지 이종민씨는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해경 지휘부와 청와대 관계자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역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고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다.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국민은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에 생명안전 공약 약속을 제안했다. 사참위 권고 이행,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가장 우선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

했다.

학생 대표로 추모사 낭독에 나선 목포 제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신세영양은 “세월호 참사 당시 9살이었던 저는 희생자들보다 많아진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학교에서 매년 4월16일이 돌아올 때마다 희생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노란 리본을 달아 그들을 기억한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장 뒤편에는 ‘안전사회’를 약속하는 의미로 나무 그림에 지장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 부스도 마련됐다. 추모객들은 나뭇가지 끝마다 엄지손가락으로 색색의 지장을 꼭 눌러 찍고, 그림 옆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잊지 말자’ 등의 추모 문구를 적기도 했다.

추모객 설모(42)씨는 “참사의 책임은 구조를 방기한 국가에 있다”며 “새 국회가 열린 만큼 세월호를 비롯한 각종 국가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안전 시스템 마련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팽목항 일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연대가 주최하는 추모·기억식이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16분까지 진행됐다. 같은 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오후 2시 예술인들이 노래, 그림 등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예술인행동장’ 행사가 열렸으며 오후 7시 세월호참사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가 기억식 및 기억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 여성단체 “5·18 성폭력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를”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가 5·18민주화 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까지 소수의견으로 기재해 보고서의 의의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사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5·18성폭력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폭력 책임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

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미가 있다”며 “40년 동안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고통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 첨부한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서라는 의의를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두고 종합

보고서는 국가 보고서로서 권위 있는 보고서 형식을 갖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2일 계엄군에 의한 성추행 및 성고문 피해 사건을 조사한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 위원회 공식의견에 반대하는 위원 3인의 소수의견이 첨부돼 있다. 정상이 기자

## 목포경찰,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 검거

목포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보이스포싱에 속은 B씨로부터 목포시 거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전달받고 이튿날 3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포싱 조직원에 속아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A씨는 이러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 5명으

로부터 2~11일 1억여원을 받아 보이스포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공휴일인 총선 선거일 B씨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 상품 안내 전화를 받았다는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 검거에 나섰다.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경찰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일상적인 대화 도중 사기 범죄임을 직감하고 수사 부서에 공조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며 보이스포싱 조직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